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자치분권, 공통 경험을 통한 신뢰에 달렸다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지난 10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018'이 열렸다. 총 21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의 제도화와 구체화라는 목표를 두고 '중앙 권력을 나누면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 주민 행복이 더해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평가를 통한 수상과 함께 읍·면·동 기초단위의 우수 사례를 전시하고 시상하는 자리도 있었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라는 점을 넘어 실제로 분권이야말로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사고 수준에도 맞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구 절벽과 경제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삶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구 전략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거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등은 어쩌면 부수적 효과일지도 모른다.

이번 박람회를 둘러보면서 자치의 가장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자치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이 '자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권한과 책임의 분배와 이양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많은 권한과 책임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소위 '직능단체'의 몫이었다. 자치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전혀 다른 주체들에게 분배하고 이양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제도와 규정, 절차와 예산 등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껍데기는 훨씬 딱딱하고,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무엇보다 절실한 요소는 구체적인 무엇이라기보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지역 등 오랜 갈등과 반목을 거치면서 '신뢰'를 상실해 버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고 지역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공무원과 주민 등 상호 관계에서 신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나 욕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자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이나 예술가가 공무원의 행정을 향해 자신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신뢰는 구축될 수 없다. 반대로 공무원이 주민이나 예술가를, 행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으로만 대한다면 역시 신뢰는 불가능하다. 성별·세대·직업 등 다양한 층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치와 행정은 이것을 잘 끌어안아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치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이다. 행정기관과 중간 지원 조직, 민간단체 등이 함께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OO협의체'와 같은 형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활동 속에서 새로운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를 창조하는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의 문제이다. 기관과 단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신뢰를 잘 쌓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신뢰를 이야기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신뢰의 주체로 여긴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신뢰는 불가능하다.

'자치'는 일종의 혁명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 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예산·사람 등 모든 자원을, 경험과 사례를 만들어 내는 데 쏟아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강제 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할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늦가을 날씨입니다. 들녘에서 영글어 가는 곡식과 울긋불긋 곱게 옷 입은 단풍잎을 바라봅니다.

지난 뜨거웠던 여름, 광주 법원 입구 벤치에 앉아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휠체어에 겨우 몸을 맡기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던 장 목사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망가져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방바닥에 그냥 앉을 수 가 없어서 방석을 겹겹이 해서 겨우 앉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때 "내 나이가 90이 넘어서 얼마나 살지 몰라,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며 띄엄띄엄 말씀하셨지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당한 고통과 억울한 일,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할아버지께서는 열 일곱 살 꽃다운 나이에 일제의 노동력 징발 수단이었던 '근로 보국대'에 동원돼 일본에 끌려가셨지요.

이후 마이시 제철소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역에 시달렸지요.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셨지요. 철재를 나르다 그만 넘어져 3개월간 입원도 하지 못한 채 노역을 해야 했지요. 그 때 다친 상처는 배에 커다란 흉터로 남아 할아버지의 고단한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지요.

할아버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신가요. 임금은 고사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으니 말입니다. 삶의 곡절은 그 뿐이 아니었지요. 태평양 전쟁 중에 징병까지 되는 바람에 미군 포로 감시원을 하다가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억울한 사연을 진정으로 알아주지도 이해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난 화요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 징용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있던 날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목도리와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지요. 그때의 발걸음은 역사의 무게만큼 무겁기만 했을 겁니다.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요.

할아버지. 이번 재판이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가 있어서 늦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요?

법정에서 재판 시작 10여분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을 읽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게서 "나까지 네 사람인데 혼자 재판받은 게 너무 많이 아프고 눈물도 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없었는지 같이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럽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할아버지 네 분이 소송을 냈지만 하나 둘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지요.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날 모든 언론들은 온통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그 시간에 시민 인권 강좌 '국제 인권 제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좌를 듣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77년 한'을 풀었다고 하니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일본은 뻔뻔스럽게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출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의연히 대처하겠다"는 어처구니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사법부의 진실과 정의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반드시 사법 농단을 밝혀 사법 적폐 청산으로 이어져 더 이상 억울한 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31일 근로 정신대 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등 3명의 원고 피고인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시민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견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행한 추악한 강제 징용 재판 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적폐 장본인 등의 청산을 통해 역사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비록 매서운 칼바람 부는 겨울이 올지라도 역사의 봄은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기를 바라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 고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한 달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됨으로써 앞으로는 뒷 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벨트 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두 배인 6만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 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역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일반 차량, 사업용 차량 구별 없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1990년에 도입했는데, 약 30년 가까이 지난 올해 비로소 일반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OECD 국가 상당수가 이미 우리보다 일찍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7년 OECD 국제 도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88.5%, 뒷 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0.2%에 그쳤다고 한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호주는 앞 좌석 착용률이 97%, 뒷좌석이 86%이며, 독일은 앞 좌석이 98.6%, 뒷좌석이 99%에 달하는 등 상당수 국가가 80~90%대의 높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제도다.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가 착용했을 때 보다 앞 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뒷 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뒷좌석 탑승자가 동승자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자동차 운행 시 안전벨트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나뿐 아니라 내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생명벨트라 부른다.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불편함을 이유로 클립 등을 고정해 느슨하게 착용하지 말고 가슴과 배에 걸쳐 몸에 착 달라붙도록 정확히 착용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영암에서는 지난 5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노인 14명을 태운 미니 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8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났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버스에 탑승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사망자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은 분명히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뒷좌석에 탔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위해 계도 중인데 시행이 되는지 조차 모르는 국민들도 허다하다. 경찰의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전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 매체나 정부, 지자체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홍보와 계도,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안전벨트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뒷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은 단속이 어려운 만큼 더더욱 그렇다. 단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법규를 지키는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호주, 독일 등 선진 외국처럼 일상화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社說

노동계와 합의 광주형 일자리 서광이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의 최대 관건인 노정(勞政) 합의, 즉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광주 지역 노동계가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를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노동계가 '노조 패싱'과 '불통 행정'을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43일 만에, 첫 원탁회의가 열린 지 6일 만에 이뤄진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과 원탁회의 참가자 7인이 발표한 노정 합의문은 크게 기존 7인 원탁회의를 확대한 8인 투자유치추진단 구성 및 투자 협상 팀 설치, 지난해 6월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 협약'을 기본 토대로 한 유연한 협상, 경영 수지 분석 등 개별 조치 병행, 부품 업체 노사 의견 존중 등 12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절실함과 열망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합의를 이뤄낸 데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도 지원에 나선 만큼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어렵사리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 낸 만큼 이제 현대차를 설득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한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이 기존 노동자들과 차이가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역 사회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광주 경제와 높은 청년 실업률을 감안,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결단을 내려 주길 바라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 없이 기업의 발전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광주시와 정부 또한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행사로 격상된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89년 만에 정부 행사로 격상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내일(3일) 오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주관하게 된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는 것은 기념식이 이제 정부 행사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지만 그동안 기념식은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광주일고 기념탑에서 광주만의 행사로 치러졌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 열차안에서 일어난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일고)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생들 간 충돌이 도화선이 됐다. 일본 학생들의 희롱에서 비롯된 사건에 일본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더해지면서 광주 학생들은 일왕의 생일인 11월 3일에 맞춰 분연히 일어섰다.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됐다. 전국 194개 학교가 시위나 동맹 휴학에 동참했고 참가 학생 수만 5만4000여 명에 달했다.

광복 후 정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나선 11월 3일을 '학생운동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하지만 기념식은 광주만의 행사에 그쳤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이나 6·10만세운동과 달리 학생들이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정부 주관 첫 기념식도 이런 의미를 반영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89년 전 운동을 주도했던 광주일고와 전남여고 후배 학생들이 뮤지컬 공연으로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정부 주관 기념식 격상을 계기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이 길이길이 이어졌으면 한다.

無等鼓

감독 수난 시대

미국 프로 야구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정작 LA보다는 보스턴에서 인기가 높다. 레드삭스의 지긋지긋한 '밤비노 저주'를 86년 만에 풀어 준 선수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보스턴 시내 모든 음식점에서는 그에게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2004년 보스턴은 뉴욕 양키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3패로 벼랑 끝에 몰린 뒤 4차전에서도 3-4로 뒤진 채 9회 말을 시작했다. 볼넷으로 얻어 낸 무사 1루. 대주자로 나선 로버츠는 과감하게 2루를 훔치더니 극적인 동점 득점을 올렸다. 보스턴은 연장전 승리 후 기적 같은 '리버스 스윕'을 달성했고, 월드시리즈에서도 4승 무패로 정상에 올랐다. 로버츠의 도루는 포스트시즌이 열릴 때마다 '더 스틸'(The Steal)로 회자되고 있다.

올 시즌 LA가 보스턴에 1승 4패로 월드시리즈를 넘겨주자 투수 교체와 타순 배치 등 작전 실패를 꼬집어 '보스턴 우승, 로버츠 MVP'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재임 3시즌에 3차례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팀을 2차례나 월드시리즈에 올려놓은 로버츠 감독으로선 견디기 힘든 수모였을 것이다.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겪고 있는 수난도 로버츠 못지않다. 지난 시즌 우승의 영광도 잠시. 올해 5위라는 저조한 성적과 임창용 방출에 뿔난 팬들이 '김기태 퇴진'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챔피언스필드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인터넷 카페 '김기태 퇴진운동본부'까지 개설됐다. 원정 도박 파문으로 선수 생활 위기에 처한 42세 노장 투수를 품어 주고, 1000경기 출장과 현역 최고령 선발승 기록의 토대를 마련해 준 김기태 감독 입장에선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엔 유난히 프로야구 감독 교체가 많은 것 같다. 정규 시즌이 끝나자마자 물갈이에 나서 NC, 롯데, kt가 이미 사령탑을 바꿨고 SK도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새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 KBO 10개 구단 중 절반 가까이 교체되는 '감독 수난 시대'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막중한 책임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셰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4세'를 꼬집고자 그의 희곡 작품에서 한 말이다.

/유제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